

統一에 대비한 圖書館政策

정 필 모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도서관의 정책적인 면에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서관계의 사정을 먼저 면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의 도서관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공刊 자료는 극히 적고 아주 소약한데 그중에서 1986년에 미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한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2nd ed.)에 수록된 자료가 비교적 상세하고, 도서관에 관해서 1983년 4월에 남한정부와 북한정부간에 제 3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문서가 교환된 자료가 있으므로, 우선 이 두가지 자료를 근거로 상호 보완해서 북한의 도서관 현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북한 도서관계의 현황

“국립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中央圖書館은 평양에 있는데, 1946년 10월에 개관된 것으로 그 규모는 연건평 17,000평방미터(약 5,000평)에 7층건물로 장서는 약 300만권을 소장하고 있고, 열람석은 2000석이며, 부대시설은 민족고전실, 일반열람실, 자연과학 사회과학등 부문별 열람실, 중앙참고문헌열람실, 특허창의고안열람실, 청년학생열람실 및 영화시설, 商店, 食堂등을 갖추고 있다.

평양시내에 있는 人民大學學習堂은 1982년 4월에 개관된 것으로, 그 규모는 연건평 124,000평방미터(약 37,000평)높이 72미터 12층규모의 한식건물로서, 藏書는 1982년현재 1,500만권, 열람석이 5,800석, 매일 평균 12,000여명을 수용한다. 부대시설은 600여개의 방(열람실, 강의실, 녹음실, 홍보실, 문답실 등), 강의실이 800석(외국어강의실, 시청각강의실이 있음). 書庫는 관성식 원격 도서운반장치가 되어 있고, 열람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었다.

지방의 도서관은 靑津, 咸興, 新義州, 海州, 元山, 강계, 평송, 사리원, 혜산 등에 道, 市단위와 郡단위까지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다.

사리원에 있는 北黃海지방도서관은 6만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고, 咸興에 있는 도서관은 4만권, 海州에 있는 도서관은 3만3천권을 소장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開城과 靑津에는 장서 약 2만5천권을 소장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이 있다.

金日成大學을 비롯한 170여개의 대학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1946년에 설립된 平壤에 있는 김일성대학

의 도서관은 藏書가 약 200여만권, 열람석이 1,200석이다. 평양에는 김책공학연구소와 평양의학연구소도 있다. 주요도시(main towns)에는 공과대학, 농과대학, 수산대학 및 교사양성소 등을 포함하는 고등 전문교육기관이 있다. 또한 공업대학들도 있다. 이러한 교육기관에 있어서의 도서관봉사에 관해서는 통계자료나 기타의 상세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전문도서관은 핀잔(Finjan)에는 농업과학연구소가 있고, 평양에는 산림연구원, 의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원 등이 있다.

기타 평양 개성등 각 도단위로 학생소년궁전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대시설로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다. 평양에 있는 學生少年宮殿圖書室은 1963년 9월에 개관된 것으로, 평양의 중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부지가 11만 평방미터(약33,000평), 건평 5만평방미터(약15,000평)의 13층탑식건물(높이 55.3미터)로 방이 200여개이다. 부대시설은 도서실 藏書 10만권, 金日成 혁명사상연구실, 오락실(1,000명수용), 극장(1,150석), 체육관(1,000명수용)을 갖추고 있는데 건물용도는 학생들의 과외 학습장으로 이용된다.

북한의 도서관에 대한 개념은; 책을 통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과정을 촉진하며,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므로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귀중한 문헌재부(자료)를 보관 관리하는 중요한 문화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서관을 인민의 학습장으로 만들어 인민들을 학습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서 金日成의 혁명사상을 학습하며, 유일교양사업을 위해 主體形의 공산주의혁명을 육성하는 인민의 혁명학습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소위 인민들에게 거의 매일같이 의무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독서하게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시킨다는 기사를 수년전 북한에 다녀온 인사의 기행문에서 읽은 기억이 있다. 그 독서의 주된 목적이 비록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또는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주입시키고 이른바 과학적 교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독서는 거의 생활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도서관협회는 1953년에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IFLA에 가입되었고, 협회 사무국은 평양에 있는 중앙도서관내에 있다. 한편 북한의 어느 대학에 도서관학과나 문헌정보학과가 있는지, 혹은 사서양성기관이 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도서관계의 사정은 도서관의 수나 그 건물규모나 장서의 규모면에서 남한에 비하여 월등하게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궁극하고 더구나 바로 수일전 4월 7일자 朝鮮日報에 북한의 妙香山에 있는 普賢寺의 藏經殿에 高麗八萬大藏經(6,780권, 86,600장)이 보존되어 있다(李春三기자)고 하니 의문과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단시일내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은 충동을 크게 느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상황이라도 앞으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경우(그 통일이 독일의 경우처럼 급진적으로 단시일내에 통일되던 아니면 적어도 7.8년의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통일되던)여하간 통일만 된다면 통일이후의 정치체제는 독일이나 소련이나 기타 동구권의 경우처럼 자유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정치체제가 수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외국의 문화와 담을 쌓았던 장벽이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만이라도 보장된다면 북한국민의 얼어 붙었던 모든 사상은 봄바람에 눈녹듯이 단시일내에 녹아 버릴 것이고, 북한의 도서관에 소장되었던 도서관자료중에서 적어도 人文 社會科學분야의 자료는 거의 史料的價値 이외에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2. 제 1차적 대비—良書의 개발

그렇다면 통일 이후 북한국민들을 어떻게 교화할 것인가? 매스컴을 통해서 선전하고 정치강연등에 의해서 교화할 것인가? 그것은 초기의 잠정적인 수단밖에는 되지 못한다.

북한국민들에 대한 재교육 또는 교화를 위한 가장 안정적이며 정상적인 최선의 방법은 여러가지의 다양한 교양도서를 보급해서, 이러한 교양도서를 자유로 선택해서,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교화하고, 스스로 재교육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교양도서의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8.15해방직후의 구호물자처럼 또는 農魚村의 책보내기 운동처럼 南韓에서 별 쓸모도 없는 헌 책이나 거두어서 북한에 보낼 것인가? 그런 일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현명 할 것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에 얼어 붙었던 북한국민들은 이미 그들이 지녔던 사상을 송두리채 버리고 보면, 그들의 정신자세는 전반적으로 오히려 남한국민들 보다도 순수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한의 국민들은 자본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크나큰 병폐라고 볼 수 있는 利己主義와 사치와 낭비와 퇴폐적인 풍조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저 순박한 북한의 국민들에게 또는 북한의 모든 도서관에 어떠한 책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그동안 남한에서 발행된 그 많은 도서가운데 3류나 4류의 문학서적이나 사치와 낭비를 조장하는 퇴폐적인 잡지류등도 마구잡이로 보급할 것인가? 그래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도서관의 장서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한의 도서관장서를 보급하기 위해서도 8.15해방 이후 현재까지 발행된 모든 교양도서에 대한 대대적인 평가와 정리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良書로 평가된 도서에 한해서 良質의 종이에 선명하게 인쇄해서 완벽한 藏書用으로 제본해서 각종 도서관에 보급되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의 도서관을 중심으로한 주변 환경과 문화정책을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남한의 도서관기반 정립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서관건물이나 시설도 중요하고, 도서관에서 봉사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사서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의 기본적인 장서를 구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훌륭하고 알찬 기본장서가 없이는 아무리 유능한 사서도 그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도서관건물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필요적절한 장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도서관은 독자들이 자기책을 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공부방이나 휴식공간 밖에는 되지못한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전국의 郡단위나 대도시의 區단위까지 공공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하고, 학교도서관도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설치하고, 자격있는 유능한 司書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진흥법을 이미 제정했고, 이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제정해 놓았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정부에서 이들 법규대로 시행만 하면 될 것이다.

a. 장서구비를 위한 재원확보

그러나 각종 도서관의 藏書를 지속적으로 구비할 수 있는 財源과 건설하고 훌륭한 장서를 구비할 수 있는 아

무런 법적 보장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도서관진흥법에 도서관진흥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거의 형식적인 것이 되기 쉽고, 확실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모든 국공립도서관의 도서구입예산은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공립의 도서관 건립예산이나 시책들의 보수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급하는데 여기에 소장되는 圖書의 購入예산은 예외로 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국공립도서관의 도서구입예산은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급되거나 권위있는 협의기구에서 선정된 도서를 일괄 구입하여 도서관에 보급하는 것이 상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b. 장서의 質과 量의 정비

우선 법적인 문제는 뒤로 미루고 앞으로 장서의 질은 어떻게 정비할 것이며, 장서의 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명색만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각급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장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빈약하고, 그나마도 이미 발행된지 7,8년이나 10여년이 되어 독자들이 읽을만한 책이 없으니 이러한 사실을 우선 북한의 국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또한 앞으로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많이 보급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책을 대신하는 독서의 도구는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양적으로 충분히 구비하고, 새로이 발행되는 양서를 지속적으로 구입해서 독자들에게 봉사하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양질의 도서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양질의 도서를 선택하는 것은 차원 높은 광범한 교양과 지식을 요하는 문제로서 신중한 시책이 요망된다. 또한 이를 공식적인 기구에서 피상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개재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볼때 지난 2월 20일자 中央日報에 소개된 바 있는 <이달의 책>이라는 독서모임같은 활동은 도서관의 봉사활동 이상으로 대단히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생각된다. 신문에 소개된 기사에 따르면 90년 6월 현직교수, 유아원장, 전직교사 등 50대주부 7명이 발의하여 회원 100명으로 출발한 이 독서클럽은 1년 6개월 만에 회원이 800명으로 늘어났고, 또한 회원들의 희망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어린이 독서클럽>도 발족하여 어린이 회원 63명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급성장한 배경은 철저한 봉사정신이다. 이 독서클럽은 매달 양서 한권씩을 선정, 20-30% 할인한 서점출고가격으로 책을 일괄구입하여 회원들에게 구입원가로 우송해 준다. 또 이 독서회는 <이달의 책소식>이라는 소식지를 매달 발간하여 회원들에게 부처준다. 이 소식지는 책 선정경위, 회원들의 독후감 뿐만 아니라 신간정보, 추천도서목록 등을 실고 있다.

이러한 진지하고 착실한 독서보급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러한 독서회에서 선정되거나 추천된 양서들이 각종 도서관의 장서로서 소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c. 정부간행물과 학회지의 도서관에의 보급

수년전만 해도 정부의 각 부처에서 발행하는 政府刊行物이 공공도서관을 비롯해서 각급 도서관에 정기적으로 배포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간혹 결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보급되어서 국민에 대한 정부의 홍보자료로서 활용되고 또한 관계분야의 연구자료로서 활용되기 바란다.

한편 대학도서관이나 각 연구소 및 연구기관에 모든 전문 주제분야의 학회에서 발행하는 學會誌가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각 학회에 단체회원으로 가입된 도서관에 한해서만 학회지가 보급되고 있는 것이다. 학회지는 각 대학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관련된 연구기관에는 당연히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학술진흥재단에서 각학회에 보조금을 지불할 때 대학도서관이나 각연구소에 학회지를 의무적으로 보급하도록하고 보조금을 어느정도 증액하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 전문주제별 서지 색인 초록지의 편찬과 보급

선진국의 경우처럼 각 전문분야의 서지와 색인과 초록지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편찬되어 보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각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과 기사가 국회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기사색인에도 수록되지 못하니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학술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할 것인가? 이 문제는 모든 학회지가 국회도서관에 수납된다면 어느 정도는 해결 될 것이다.

외국의 학술정보는 다양한 書誌와 索引 抄錄등을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CD-Rom을 통해서나 On-Line에 의한 Dialog을 통해서 비교적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비용은 많이 든다해도 원문자료도 입수할 수 있는데, 국내의 학술정보를 수집하기가 더욱 어렵고 시간이 더 걸리고, 노력과 비용이 더 들게 되었으니, 도서관이 어떻게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봉사할 것인가? 앞으로 컴퓨터가 아무리 보급된다 해도 각 도서관마다 학술서지나 색인 초록 등을 신속히 체계적으로 편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학자연구가 적고 학술활동규모가 작은 나라에 있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 등에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지않을 것이므로, 국가기관이나 재원이 많은 연구기관에서 분야별로 분담해서 학술정보의 수집 추적 처리 및 보급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여담이지만 도서관계도 南北간에 시찰단을 구성해서 상호방문시찰을 제의했으면 좋겠으나 南韓의 도서관은 보여줄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이상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성사되고 앞으로 南韓에서 발행되는 양질의 모든 文獻이 북한의 각 도서관에 충만하게 소장되어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될수 있어야만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들을 교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사항을 政府와 도서관계와 문화활동분야에서 충분히 수용해서 통일에 대비하여 도서관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랄 뿐이다.

회원 입회절차

회원에 입회코자 하실 때에는 회원입회 신청서에 소정사항을 기재 날인하여 제출하고 소정회비를 납부하시면 회원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 ※ 1. 전화신청가능
- 2. 회원가입시특전은 평생 회원란 참조
- 3. 연락처 : 한국도서관협회
· 전화 : 535-4868·5616

회원의 구분

회원구분	회비(연)	입 회 기 준
단체회원 1	180,000원	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의 국공 사립 공공도서관/대학(교)도서관/연구기관 부설도서관/금융기관 및 기업체 부설도서관/중앙부처 부설도서관/군기관 부설중앙도서관/기타 주요도서관
단체회원 2	120,000원	시소재지의 공사립 공공도서관/전문대학 도서관/관공서 및 사회단체 부설도서관/ 군기관 부설도서관/기타 주요도서관
단체회원 3	40,000원	초중고등학교도서관(실)/균등면소재 공사립 공공도서관(부회비 2,000원 포함)
개인회원	15,000원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자격증 (1급정사서·2급정사서·준사서·사서교사) 을 소지한 자 및 도서관학을 18학점이상 이수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자